

“자녀 뒤쳐질까 두려워서… 취학전 사교육”

4.9세부터 시작하고 26만원 지출

(평균)

(월 평균)

초등학교 취학 전 사교육을 시킨다는 학부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 전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월평균 26만4000원이었고, 학부모 상당수는 사교육비가 부담되지만 여러 이유로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15일 윤선생이 지난 4월2일~7일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6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75.5%는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자녀가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4.9세였다.

취학 전 사교육의 형태(복수응답)로는 ‘학습지’(67.3%) 구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학원’(44.6%), ‘전집·교구 구입을 통한 교육’(30.3%) 순이었다. 학부모 10명 중 약 2명(19.6%)은 ‘개인과의’를 시켰고 ‘그룹과의’(8.4%), ‘온라인 강의’(3.9%)를 시킨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

부모가 취학 전 자녀에게 쓰는 사교육비는 월 평균 26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보면, ‘10만원~20만원 미만’(28.0%)이 가장 많았고, ‘20만원~30만원 미만’(25.8%), ‘30만원~40만원 미만’(16.5%)이 그 뒤를 이었으며,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답변도 9.2%를 차지했다.

사교육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드는 과목은 영어(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육’(18.2%), ‘창의력놀이’(15.1%), ‘국어·한글’(13.7%), ‘미



윤선생 학부모 648명 대상 설문 10명 중 1명은 월 50만원 지출 학습지 67% 1위, 29%는 과외 영어>체육>창의력놀이>국어順

술’(8.4%), ‘음악’(3.1%), ‘숫자’(2.2%), ‘독서’(0.6%) 순이었다.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79.6%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한 이유(복수응답)로 ‘자녀가 뒤쳐질까 봐 불안해서’(45.8%)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이어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39.1%),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습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39.1%)를 꼽았다.

이밖에도 ‘공교육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서’(17.9%), ‘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14.4%), ‘주

변 학부모들이 대부분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서’(13.4%) 등이 있었다.

반면, 취학 전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응답)를 물어본 결과, ‘너무 어릴 적부터 시작했다가 오히려 공부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길까 봐’(4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교육만으로도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서’(39.6%),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23.3%), ‘엄마표 교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16.4%), ‘아이가 사교육 받는 것을 싫어해서’(9.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과별로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가 가장 컸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준생 71% “스타트업 취업 의향 있어”

잡코리아-알바몬, 719명 설문 선호 이유 ‘수평적인 조직문화’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스타트업 기업 취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최저 연봉은 평균 2817만원이었다.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과 취업생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스타트업 취업 의향이 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취업준비생(71.0%)이 직장인(65.8%)보다 소폭 많았다.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복수응답)로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53.6%)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35.9%), ‘워라벨이 좋을 것 같아서’(20.7%),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14.7%) 등이 뒤를 이었다.

스타트업 취업 시 취업생들이 희망하는 최저연봉 수준은 평균 2817만원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2854만원, 여자가 2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희망 직무 분야(복수응답)는 ‘마케팅/홍보’(33.2%)가 가장 많았고 ‘IT/정보통신’(20.7%), ‘인사/총무’(19.9%), ‘디자인’(16.8%), ‘연구/개발’(15.4%), ‘기획’(15.1%)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서 열린 ‘뷰티산업박람회’ 15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뷰티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생 10명 중 2명 “의사·간호사 되고파”

인문계 교육직, 자연계 의료직 선호

고교생 10명 중 2명은 장래희망 직업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을 선호하는 등 고교생들의 장래희망 직업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은 교수·교사·연구원 등의 선호도가 높았고, 자연계 학생들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관련 직업을 선호 경향이 컸다.

15일 진학사가 지난 4월 3일~9일까지 고1~고교졸업생 1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희망 직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2명(20.0%)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직을 장래희망 직업으로 꼽았다.

이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4.5%), 교육·연구 관련직(14.2%), 서비스업 관련직(6.0%), 공무원(5.4%), 변호사 등 법률 관련직(4.3%), 경영 및 개인기업 관련직·공기업 임직원(각 4.0%)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계열별로 선호하는 장래희망 직업군은 차이를 보였으나, 특정 직업군에 많이 쏠렸다. 인문계 남학생 중 17.1%는 ‘교육, 연구 관련직(교수, 교사, 연구원)’을 선택했고, 자연계 남학생 중 24.0%는 ‘보건·의료 관련직’을

장래희망 직업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23.9%)을, 자연계 여학생 중 ‘보건·의료 관련직’을 장래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절반(49.0%)에 달했다.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별, 계열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의 70.1%는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밖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서(정년보장)’(10.0%),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6.2%)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용수 기자

비상교육 창의융합 ‘주제중심 교과서’ 개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교과서가 나왔다.

글로벌 교육문화기업 비상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과 학교 현장의 융합 수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모당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주제중심 교과서’(사진)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제중심 교과서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통합,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게 개발된 미래형 교과서다. 주제중심 교과서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학년별로 정해진 주제를 깊이 있게 배우면서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게 핵심으로, 1~5학년 각 1종과 6학년 2종 등 총 7종으로 개발됐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업코칭 프로그램’ 진행

세종대학교는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학업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전략(SLT), 목표 설정 등 효율적인 학업생활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학생 1, 2학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개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한성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자유학년제 분야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한성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당 사업을 수행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이 인문학을 향유함으로써 삶을 되돌아보고, 자생적 인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성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8월 19일부터 두 달간 성북구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나의 미래를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테마파크·키즈카페·공방 할인 ‘한 눈에’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 론칭

에듀테크 전문 기업 웅진씽크빅이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 공간 큐레이션 플랫폼 ‘놀이의 발견’을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다.

놀이의 발견은 아이들이 몰입해 즐길 수 있는 전국 놀이 공간을 한 자리에 모아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이다. 키자니아, 아쿠아플라넷, 웅진플레이도시 등 전국 유명 테마파크를 비롯해 각 지역 키즈카페, 공방, 체

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아 별도 가입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지난해 11월부터 웅진 북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 오픈돼 현재까지 8만5000여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기존 회원뿐 아니라 더 많은 가족들과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일반 고객 대상으로 사용자 확대를 결정했다. /한용수 기자